

보도시점 2026. 10. 30.(금) 12:00 배포 2026. 10. 29.(목) 14:00

따스한 가정의 품으로, 국가봉사동물의 견(犬)생 2막을 지원합니다

-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제4회 검역탐지견 홈커밍데이 개최
- 동물의료·산업협회의 국가봉사동물 지원 현황 점검 및 입양자 의견 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직무대리 정승교, 이하 ‘검역본부’)는 10월 30일 영종도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은퇴 검역탐지견 11마리와 입양 가족들과 함께 검역탐지견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였다.

홈커밍데이는 입양 가족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매년 10월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탐지견센터로 초청하는 행사이다. 2023년부터 시작한 홈커밍데이는 검역탐지견의 입양 이후의 근황을 점검하고 입양 가족 간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양 가족 대상 감사패 증정식과 근황 공유,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가을 운동회 등이 진행되었다. 검역본부와 관세청 탐지견 협력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호 수의사(現 하늘동물병원 대표 원장)를 초빙하여 반려견 주요 증상별 건강관리 교육 시간도 가졌다.

감사패 증정식 이후에는 검역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2024년 9월 동물의료·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국가봉사동물 입양 가족에게 진료비, 사료비, 보험료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양육비 경감을 위해 실제 지출한 양육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펫사료협회, 한국반려동물장묘협회, 한국동물장례협회, 손해보험협회

이날 농식품부 김정옥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추가로 참여한 17개 업체를 포함하여 협회별 지원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실제 은퇴 봉사동물을 돌보고 있는 입양 가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입양 가족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의료비 부담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협력 동물병원 중심 할인 지원 외에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거점 동물병원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지난 10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운영을 앞둔 4개 대학 동물병원(강원대·충북대·충남대·전남대)의 지원체계 구축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지원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통합 입양플랫폼* 외에도 국민들이 실제로 은퇴 봉사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화, 질병 등으로 인해 입양이 어려운 동물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검역본부 탐지견 지원센터 직원들과 입양자들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 반려동물 입양 > 국가봉사동물입양

김정옥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국가봉사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신 입양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국가봉사동물이 은퇴 후 그에 걸맞은 예우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국가봉사동물 지원 정책 현황

붙임 2. 현장 사진 (별송)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원지선 (044-201-2620)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	책임자	과 장	안종현 (032-752-1275)
		담당자	팀 장	이준열 (032-752-0381)

1. 현황

- 국가봉사동물이란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으로 현재 6개 부처*에서 약 1,100마리 운용 중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보조견 제외
*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 실종 중학생 수색(군견)



▲ 불법농축산물 탐지 (검역탐지견)



▲ 튀르키예 대규모 강진 인명 구조(구조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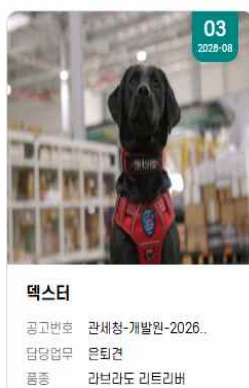
2. 주요 지원 정책

- ◇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5-’29)에 ‘봉사동물 복지 증진’ 과제 포함, 6개 부처 봉사동물을 포괄하는 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중

- (협력) 국가봉사동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25.9) 체결, 실무 협의체 운영(‘26.1월, 6월) 등 부처 간 협조 체계 강화 및 과제 발굴
* 농식품부, 국방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관세청/ 6개 기관 전원 참여
- 훈련·활동 등 생애주기별 걱정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25.12)
 - 동물보호의 날(10.4) 계기 봉사동물 역할 홍보로 대국민 인식개선



▲ 국가봉사동물 통합 입양 플랫폼 내 입양 정보



▲ 할인 지원병원 안내판

□ **(입양) 입양 접근성 개선 및 비용 경감 등 은퇴견 민간 입양 활성화**

- 통합 입양 플랫폼(animal.go.kr) 통한 상시 입양 홍보(6개 부처 공동)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의료·산업계와 업무협약 체결**(‘24.10)
은퇴견 대상 진료비·사료비 등 할인 지원 확대(‘24: 56개소→’26: 73)
 * 건강검진·치료비 30% 할인(44개소), 사료비 20~50%(5), 장례비 30 (20), 보험료 5~20%(5)
- 입양자 대상 의료비·보험료 등 돌봄비용 **최대 100만원/년 지원**(‘26.4~)
 * 치료, 예방접종, 보험 등에 지출한 실비의 60% 환급/년 100마리

검역탐지견 대상 지원 현황(검역본부)

- ◇ **(교감여행)** 1박 2일간 함께 입양 희망자와 탐지견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격과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입양 여부를 결정(‘26년 신규, 트리니티항공·소노펫클럽앤리조트 협업)
 * (일시) 26.10.17~18, (장소) 강원 홍천 소노펫 클럽앤리조트, (규모) 4마리
- ◇ **(홈커밍데이)**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탐지견센터로 초청**해 입양 이후의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검역본부-입양견-보호자 간 **소통과 교류의 기회** 제공(‘23~)
- ◇ **(진료지원)**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진료비 할인(30%)** 제공

3. 향후 추진 과제

□ **(공공거점 동물병원) 국가봉사동물(활동·은퇴 여부 불문) 대상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물병원 지정, 안정적 진료 체계 구축**

- 현재 부처별로 상이한 지원 조건을 **상향 평준화**하고, 기관 보호(현역) 개체뿐만 아니라 **민간 입양(은퇴) 개체까지 지원 확대**
- 대학동물병원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4개 대학**(강원·충북·충남·전남대)과 **업무협약**을 체결(‘26.10.2)하고 **시범사업 운영** 예정

□ **(은퇴견 지원센터) 통합 지원센터 설립·운영으로 은퇴 후 예우 강화**

- 은퇴견의 재사회화 및 입양을 전담 지원하고, **중증·고령견 등 입양 부적합견은 평생 보호함**으로써 생애 마무리 뒷받침

